

대구 북구, 최적의 대학 지원전략 수립 ‘2027학년도 대입설명회’ 성료

유재원 기자 jfirst5179@hanmail.net 입력 | 수정 2026.03.09 20:19



교육청소녀과, 2027 대입설명회 1차(사진=북구청 제공)

[경상매일신문=유재원기자]대구 북구는 지난 3월 7일(토) 북구청소녀회관에서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1차 대입설명회'를 개최

이번 설명회는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와 북구청소녀회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로 지난 2025년에 처음 공동 개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

강의는 조홍래 대구진학지도협의회장(학남고 진학부장)이 맡아 2027학년도 대입 전반에 대한 준비 방향과 함께 2028학년도 이후 대입전형 변화에 대비한 전
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흐름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대입제도와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와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구 복구, 2027 대입 전략 먼저 풀었다

✎ 김민규 기자 | Ⓞ 승인 2026.03.09 14:05

수험생·학부모 120명 몰린 입시 설명회, 변화 대응 방향 제시



▲ 대구 복구가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입시 전략 설명회를 열고 있다. 복구 제공

대구 복구가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입시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복구는 지난 7일 복구청소년회관에서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학년도 1차 대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복구진로진학지원센터와 복구청소년회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빠르게 바뀌는 입시 환경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처음 공동 개최된 이후 높은 관심을 얻으면서 올해도 이어졌다. 현장에는 대입 제도 변화와 준비 전략을 확인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입시 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의는 조홍래 대구진학지도협의회장(학남고 진학부장)이 맡아 진행했다. 조 회장은 2027학년도 대입 준비 방향을 중심으로 향후 2028학년도 이후 예상되는 입시 제도 변화까지 함께 짚으며 장기적인 진학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흐름과 입시 준비 방법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하는 입시 환경을 이해하고 진로·진학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배광식 복구청장은 “대입 제도와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와 진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의 진학 준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daum.net

대구 북구, 최적의 대학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2027학년도 1차 대입설명회' 성료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등록 2026.03.09 13:10:49



▲ 2027 대입설명회 1차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대구 북구청은 지난 3월 7일 북구청소년회관에서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1차 대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와 북구청소년회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로, 2025년에 처음 공동 개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높은 관심에 힘입어 올해에도 이어 개최하게 됐다.

강의는 조홍래 대구진학지도협의회장(학남고 진학부장)이 맡았다. 2027학년도 대입 전반에 대한 준비 방향과 함께 2028학년도 이후 대입전형 변화에 대비한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흐름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하는 입시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개인별 진로와 진학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대입제도와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와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